

30세 미만 백신 접종 예약 시작

진안군, 오늘부터 18~30세 미만 화이자 백신 예약... 15~26일 1차 접종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18~3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상자는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제외 대상자로 돌봄종사자, 사회필수인력,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중 18~30세 미만 중 미접종자이며 7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15일부터 26일까지 1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 등 본인이 직접 모바일 등을 이용해 가까운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진안군에 현재 65~74세, 만성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접종 중에 있으며 60~64세 대상자에 대해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접종대상 순서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안군 예방접종센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한 접종에서 1차

3,991명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이 1차 87.6%, 2차 82.3%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접종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날 13일까지 1차 접종을 마무리한 뒤 18~3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접종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집단면역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해 일상생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방치쓰레기 수거·불법 투기 단속 총력

30일까지 총 4단계 진행 중... 재활용 가능 자원 분류·수거·생활방범 CCTV 활용 단속 등 추진

무주군이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야산, 계곡, 마을 주변과 공한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불법 투기 행위 단속도 병행해 깨끗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 및 단속은 총 4단계로 진행되며 5월 18일부터 6일까지 1단계로 무주읍 성안길과 안성면 이목마을 임도, 수락마을, 적상면 광포, 마산마을 등 5곳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지난 2일 무주읍 성안길에서 진행된 수거작업에는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김민환 센터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군수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정리해 겉과 속이 모두 쾌적하고 안전한 무주를 만들 것"이라며 "인식 개선도 시급한 만큼 수거, 단속과 함께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는 읍·면장과 마을이장이 주체가 돼 7일부터 30일까지 생활 터 주변을 정리하는 것으로, 각 마을이 자체 수립한 계획을 기반으로 폐비닐과 농약병, 페트병을 비롯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분류·수거할 방침이다.

또 이장회의와 읍면 전광판 등을 활용한 주민홍보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와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분리수거 생활화 실천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3단계로 무주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총 30개소) 운영을 확대하고 관제센터와 연계해 생활방범 CCTV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4단계에서는 각 읍·면 자율방재단,



무주군이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야산, 계곡, 마을 주변과 공한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지난 2일 무주읍 성안길에서 진행된 수거작업에는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김민환 센터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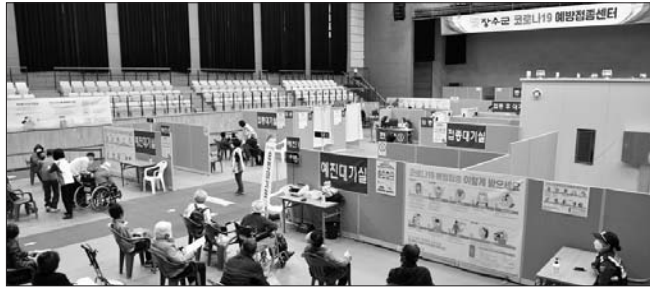
청년회 등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고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김동필 과장은 "지난 5월까지 수해로 어지러웠던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 경관 개선은 물론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까지 수거한 쓰레기 양은 8톤 정도로 수거기간 동안 인적

이 드문 야산과 계곡 등지까지 살살이 정리하고 더 나아가 불법 투기 근절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 고장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고 감시원도 되어 불법 사항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장수군, 코로나19 접종예약율 상위

60~74세 기준 도내 평균 75.55% 장수군은 88.38%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수군의 사전예약율이 전라북도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전라북도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접종 예약율은 60~74세 기준 평균 75.55%로 나타났으며 장수군은 88.38%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70~74세 기준 91.38%(전북 평균 78.83%), ▲65~69세 기준 90.54%(전북 평균 76.60%), ▲60~64세 기준 83.22%(전북 평균 71.22%)를 기록하고 있어 10% 포인트

이상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관계 기관의 홍보와 군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전개된 것과 더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 면역력 형성을 우선시하는 의식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장형섭 장수군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장은 "코로나19 이전 일상 생활을 되찾기 위해서는 집단면역 형성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며 "장수군은 9월까지 전 군민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제66회 현충일 추념행사 가져

무주군은 6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무주읍 지방공원 충혼탑에서 추념행사를 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 회 의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회장 등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및 분향으로 선열들을 위한 추념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무주군지회 주최로 열린 현충일 기념행사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방지 차

원에서 생활속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행사 규모를 축소,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 무주군 6개 읍면지역 20개소 현충시설 등에 황인홍 무주군수의 근조 바구니가 놓아져 군민들에게 현충일의 의미와 뜻을 동참하도록 했다.

앞서 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해 전봉군경우족회와 전봉군경미망인회 회원, 상이군경회원, 무공수훈자 회원, 고엽제 전우회 회원 등이 지방공원 내 충혼탑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진안군은 제66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6일 진안읍 군상리 충혼묘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인 시국을 반영하고, 군민 건강과 안전 도모를 위해 참석대상을 보훈단체장, 군의원, 공무원 등 30여명으로 최소화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추념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헌화와 분향 순으로 치러졌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부득이하게 현충일 추념식 행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을 양해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무주군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공모'에 선정돼 4억9,000여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판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절감 추진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안성·설천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리모델링 초점을 맞추게 되며 고성능 창호와 내·외벽 단열,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조명, 신재생에너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 측량비 지원

진안군은 지난 4일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토지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선·용도구역선 등에 포함된 사유지이다. 그런 이러한 토지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했고, 분할측량이 아니더라도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의 통행·진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저지함으로써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목적 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 될 경우 분할 측량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해당 토지 소유자가 그간 부담해 왔던 건당 50만원 정도의 측량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